



정교회주보

제2415호

2023.4.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미스트라에 있는 성묘 회보 성당이다. 15세기 초에 돌을 얹은 십자가 형태로 건립되었으며, 성당 주변에 묘지와 납골당이 조성되어 있다. 중요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성지 주일

성 에브프시히오스 순교자

(축일 조과에서)

- '찬양되시는 주여...' 생략
- 조과 복음 : 마태오 21,1~17
- '그리스도를 본 후에...' 생략
- 엑사쁘스틸라리온은 '주 우리 하느님은 거룩하시다'만 3번 부른다.
- 이어서 '종려 가지 축성기도'
(각종 예식서 371)
- '대영광송' 다음에 '성지주일 찬양송'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성지 주일 제 2 응송 239
- " " 찬양송 239
- " " 입당송 239
- " " 시기송 239
- 사도경 : 필립비 4,4~9 239
- 복음경 : 요한 12,1~18 240
- 성지주일 성모송 (비고정 성가집 67)
- " " 영성체성혈송 241
- '우리가 참 빛' 대신 성지 찬양송 239

주님께 종려 가지를 바칩시다

어린 나귀에 오르신 그리스도시여, 천사들이 삼성송으로 찬양하는 당신은, 수난을 향해 나아가실 때, 악의 없는 어린이들의 성가를 받아주셨나이다.

시온아, 불지어다. 너의 임금님이시로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구세주이시로다. 힘으로 원수들을 때려눕히기 위해 어린 나귀 타고 전진하시는도다. 갈대들과 이 축일을 경축하며 환성을 지르며 기뻐할지어다.

신자들이여, 하나가 되어 손뼉 칩시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덕의 종려 가지를 그리스도께 바칩시다. 그 발 앞에 우리 선행의 옷자락을 펼칩시다. 우리 마음의 은밀한 곳에 그분을 영접합시다.

형제들이여, 그 신성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무정념의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유롭게 동의하신 수난을 겪으시러 오시는 하느님 그리스도께, 우리 덕의 종려 가지를 바칩시다.

'프리오디온 전례서'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떠받침을 받으려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목숨을 바치려 가셨습니다. 당신을 제물로 바쳐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시다.

사람들이 주님의 희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간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오늘 복음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베다니에 들르셨는데, 그곳에는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켜주신 라자로와 그의 자매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들 세 남매인 라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을 방문하시자 마리아가 주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갖고 다가가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릿결로 닦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행위로써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온 정성을 다해 제일 비싼 향유로 발을 씻겨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는지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향기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주님을 잘 따르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불러 주시고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빈부의 차이에 따라 향유의 질은 다르겠지만, 그런 전통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의 행위는 주님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는 매우 경건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것이었기

에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와 달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과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모였던 많은 이들은 소문을 듣고 나와 “호산나!”하며 들뜬 기분으로 그분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하러 오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그분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큰 기대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토록 들뜬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로부터 닷새 뒤에는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랐는데, 주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약한 모습으로 붙들렸기에 그 미움이 극에 달하여 마침내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참으로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서 하늘나라를 이해 못하고 세상적인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시기에만 위선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마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희생과 고난을 당하시는 성대 주간을 보내면서, 금식과 기도와 예배 참여라는 향유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진정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온 집안과 주위에 가득히 퍼져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여행은 매우 짧습니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어떤 나이 많은 부인이 버스에 올라오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서 아주 거만하고 화가 잔뜩 난 젊은 여성이 올라타더니 노부인 옆에 앉아서는 자기가 가지고 탄 이런저런 물건꾸러미로 노부인의 옆구리를 툭툭 쳐댔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싫은 기색 없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본 한 젊은 남자가 왜 화내거나 불평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지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얼굴에 열은 웃음을 지으며 다음과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속하거나 무례하게 상대를 대하거나 이런 하찮은 일로 말다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여성과 함께 타고 가는 시간은 매우 짧거든요. 보세요, 전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해요.”

이 노부인의 짧은 대답은 금박 입힌 글자로 적어 두어야 할 만큼 소중한 말입니다. 곧, “아주 사소한 어떤 일에 대해서 언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함께 하는 우리의 여행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으니, 말다툼이나 쓸모없는 논쟁, 시기나 질투, 비관용(非寬容),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원한을 갖는 것,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태도 등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바보 같은 행위임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진정하고 차분히 있으면서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여행은 매우 짧습니다!

누군가에게 배반당하고,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고, 속임 당하고 억눌린 채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무시하십시오.

여행은 매우 짧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했습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무시하십시오!

여행은 매우 짧습니다!

이웃 사람이 당신이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까?

차분한 마음을 잃지 말고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여행은 매우 짧습니다!

소 식

■ 성 대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신랑 의식부터 성 대 주간이 시작됩니다. 시간표를 참고하여 적극 참여해야겠습니다. 고백성사도 미리 약속을 잡고 임하도록 합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용미리 교회 묘지 청소

지난 1일(토), 서울 성당 신자들이 묘지 제초 작업과 청소를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동정

지난 주일(2일),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방문하여 성찬예배 집전과 신자들과의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울산 성당 꽃심기

지난 주일 오후, 부활절 맞이 꽃심기를 통해 마당 화단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성 대 주간 및 부활절 예배 안내

4월 9일	성지 주일	오전 8:45	조과, 성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
		오후 1:30	신랑 의식
4월 10일	성 대 월요일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11일	성 대 화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신랑 의식
4월 12일	성 대 수요일	오전 9:00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6:00	성유 성사
4월 13일	성 대 목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6:00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식 (12 복음 봉독)
4월 14일	성 대 금요일	오전 9:00	대시과 (1, 3, 6 시과)
		오후 3:00	9 시과, 만과,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의식
		오후 6:00	에피타피오스 의식
4월 15일	성 대 토요일	오전 9:00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오후 8:00	부활절 의식 및 성 요한 크리스소스툼 성찬예배
4월 16일	부활 주일	오전 11:00	사랑의 대만과

지역 성당 예배 시간은 해당 성당에서 확인하세요.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가르침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시오

하루는 제자가 아가톤 사부에게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이미 덕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복된 사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은 나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기 몸을 그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환자의 몸을 자기 몸같이 여기는 것입니다.”